

iM뱅크, 새 수장 찾기 레이스

지주-은행 내부핵심 4인 물망

성태문·천병규·강정훈·김기만 등
차기 행장에 내부출신 인사 거론
12월 초 숏리스트 윤곽 드러날 듯
황병우 회장 의중, 인선 향방 좌우

iM뱅크의 차기 은행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M뱅크가 지난해 5월 시중은행 전환 이후 적극적인 영업 확대를 추진 중인 만큼, 전략의 지속성을 위해 외부 후보군보다는 iM뱅크와 iM금융지주의 주요 경영진이 차기 행장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앞서 iM금융지주는 지난 9월 말 iM뱅크의 자회사 경영 승계 절차를 본격화했다. 절차는 약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최종후보군(숏리스트) 선정까지의 과정은 외부 기관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iM금융 임추위는 앞서 지난 2024년에는 12월 초 숏리스트를 확정된 뒤, 황병우 현 행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황병우 현 행장은 겸직 중인 iM금융지주 회장직에 전념하기 위해 용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내부 출신 인사가 차기 행장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iM뱅크가 지난해 5월 시중은행 전환 이후 적극적인 영업 확대 전략을 지속중인 만큼 전략의 연속성을 위해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내부 인물이 적합하다는 관측에서다.

차기 은행장 하마평에는 iM금융지주의 핵심 임원 2명과 iM뱅크의 핵심 임원 2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iM금융지주에서는 성태문 그룹가치경영총괄 부사장과 천병규 그룹경영전략총



괄 부사장이, iM뱅크에서는 강정훈 경영기획그룹 부행장과 김기만 수도권그룹 부행장이 유력한 후보다.

성태문 부사장은 iM뱅크에서 마케팅 본부장을 지냈고, 지주사에서는 ESG를 비롯한 브랜딩 전략 전반을 전담 중인 인물이다. 성 부사장은 자본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등에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황병우 현 회장이 iM뱅크(당시 DGB대구은행) 은행장 발탁 이전까지 김태오 DGB금융 전 회장과 보조를 맞춘 것과 유사하게 황 회장을 보좌 중이다.

천병규 부사장은 영업 전략 및 재무에 특화된 인물이다.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당시 은행장 직속 TF(태스크포스)의 지휘봉을 잡은 바 있고, 전환 이후의 영업 전략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훈 부행장은 은행 경력과 지주사 경력을 두루 갖춘 인물로, iM뱅크의 디지털 전환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강점을 결합한 '뉴



하이브리드 뱅크'를 경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김기만 부행장은 iM뱅크(당시 DGB대구은행) 노조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능력과 조직 장악력이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iM뱅크가 시중은행 전환 이후 전국 단위의 영업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인 만큼, 김 부행장이 전국구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한 수도권 본부를 지휘해온 것 또한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금융권에서는 최종 후보군 선정에는 황병우 회장의 의중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한다. 황 회장이 4인으로 구성된 임추위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고, iM금융그룹이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이후 빠른 외형 성장을 지속중인 만큼 현재의 전략을 유지하고자 하는 황 회장의 의지도 강해서다.

차기 은행장 인선은 이르면 오는 12월 초 숏리스트 선정과 함께 가시권에 진입할 전망이다. 선임된 신임 행장은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우리은행, 가업승계 전담조직 신설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지원
권역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우리은행은 중소·중견 기업의 안정적인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은행권 최초로 '가업승계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세금부담, 후계자 육성의 어려움, 제도의 복잡성 등으로 경영의 지속성과 세대 간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국내에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업은 우리은행을 포함해 17개 안팎이다.

우리은행은 새롭게 신설된 '가업승계 전담조직'을 통해 국내 금융환경과 제도적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체계적이고 중장기적 컨설팅 모델을 개발해 권역별 맞춤형 지

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적극적인 생산적 금융 공급을 통해 직접 지원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분야는 ▲가업승계 ▲지분 이전 ▲자산관리 ▲자금지원 ▲M&A 중개 등 금융서비스 전반이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이나 상담이 필요한 고객은 기업금융 전담채널인 BIZ프라임센터를 비롯한 우리은행 기업 창구 또는 투체어스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해를 가업승계 금융서비스의 원년으로 삼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은행권 최초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라며 "국내에서 더 많은 100년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해 중소, 중견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분당구 아파트 전경.

/성남시

분당 국평 26억 시대... 용인 수지도 들썩

더샵 분당티에르원 10일 특공 시작
102가구 일반분야... 84㎡ 26.8억
수지, 분당의 약 65% 수준 동조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분양가가 26억원대에 나오면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분당 집값이 뛰면서 인근 용인 수지도 들썩이는 분위기다.

4일 청약홈에 따르면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를 3단지를 리모델링한 '더샵 분당티에르원'이 오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더샵분당티에르원은 1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분양하는 대규모 리모델링 단지다. 총 873가구로 들어서며, 이 가운데 102가구(전용면적 66~84㎡)가 일반 분양물량이다. 전용면적별 최고가 기준으로 66㎡ 19억7400만원, 74㎡ 23억1800만원, 84㎡ 26억8400만원이다.

최근 분당 아파트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분당 서현동 '시범한양'은 전용 84㎡가 지난 달 18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기록을 세웠고, 인근 '삼성한신' 역시 84㎡가 21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수지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이전부터 수지구의 아파트 가격은 분당구의 약 65% 수준에서 동조화(커플링)되는 경향을 보여왔다"며 "최근 10년 간 수지 아파트 시세는 분당의 65.8%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온 만큼 수지 역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수지에서 비교적 신축으로 꼽히는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2019년 입주)' 전용 84㎡는 올해 9월 15억3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2019년에 입주한 단지다.

수지에서는 다음달 GS건설이 '수지자이 에디시온'을 분양할 예정이다.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총 480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안상미 기자

강태영 “동남아 핵심 산업군과 협력 강화”

한화에어로·효성 베트남 법인 방문
현지 경영진과 금융협력·동향 공유

NH농협은행은 강태영 은행장이 베트남을 방문해 한화에어로엔진과 효성 베트남 법인을 잇달아 찾아 현지 경영진과 글로벌 금융협력 및 산업 동향을 공유했다고 4일 밝혔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지난 10월 30일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엔진 공장을 방문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속에서 한국항공 산업의 해외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 중인 현지 공장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NH농협은행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추진 중인 해외 우량기업 대상 직접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현지 한화에어로엔진 경영진과 글로벌 금융서비스 제공 방안 및 항공 산업 관련 금융 수요 대응 전략을 협의했다.

이어 강태영 은행장은 지난 11월 3일 호치민 동나이성에 있는 효성 베트남을 방문해 효성그룹의 베트남 투자 현황과 현지 사업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

다. 효성 측과 현지 금융·외환거래 지원 확대 및 ESG 기반 설비투자 관련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태영 은행장은 "NH농협은행은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든든한 금융파트너로서, 현지 산업 구조 변화에 발맞춘 실질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서 제조·항공·석유화학 등 핵심 산업군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GS건설, 3분기 누적 영업이익 3809억

전체 사업본부 원가율 안정화로
누계 영업이익률 4.0%로 개선

GS건설의 실적이 원가율 안정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은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조2080억원, 1485억원이라고 4일 밝혔다. 신규 수주는 4조4529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3조20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3.2% 증가했고, 누적 기준으로는 9

조46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영업이익은 14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5% 증가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3809억원으로 전년 대비 55.0% 늘었다.

GS건설 관계자는 "다수의 건축주택사업본부 고원가율 현장 종료와 함께 인프라, 플랜트사업본부의 이익률 정상화 등 전체 사업본부의 원가율이 안정화되면서 3분기 누계 기준 영업이익률은 전년 2.6%에서 4.0%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신규수주는 3분기 4조4529억원으로 누적 기준 12조3386억원을 기록해 가이던스(14조3000억원) 대비86.3%를 달성했다. 사업본부별로는 건축주택사업본부에서 쌍문역사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5836억원), 신길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5536억원)등의 성과를 올렸다. 인프라사업본부에서는 부산항 진해신항컨테이너부두1~1단계(2공구)(1100억원)을 수주하며 실적을 이끌었다.

3분기 부채비율은 239.9%로 전년말 250.0% 대비 10.1%포인트(p) 하락해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도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구축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카뱅 정부지원금 찾기 가입자 50만명 돌파

카카오뱅크의 '정부지원금 찾기' 서비스 가입자 수가 5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지원금 찾기'는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각종 지원금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출시 이후 일평균 1만명 이상이 신규로 가입하며, 50일 만에 누적 이용자 50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정책 혜택은 매월 약 1000건에 달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러한 방대한 정보를 고

객이 놓치지 않도록 챗봇 기반의 기초 정보 등록 기능과 '내 관심 지원금'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맞춤형 정부지원금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실제 '정부지원금 찾기' 이용 고객 5명 중 1명은 '내 관심 지원금' 등록 기능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상생페이백',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내일배움카드' '옴뎬효율 가전제품 환급' 등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나유리 기자